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지역사회지원체계
실무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부안군은 지난 20일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주관으로 202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사회단체 등 지역내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례에 따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청소년안전망 운영실적과 2023년 사업 추진현황 보고, 위기청소년 서비스 지원방향 논의,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연계를 위한 적극적 소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경찰, 범죄예방정책
수립 설문조사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5월 23일까지 치안 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주도형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정착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설문은 총 7개 문항으로 △거주지 △연령 △성별 △거주환경 등 기초자료와 △생활속 불안요인 파악 △주민이 원하는 치안 수요 및 환경 개선 대상지 등 공동체 치안 활동을 위한 의견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고창군민이며, 경찰서 홈페이지(팝업) 또는 URL(<https://naver.com.me/G8H6Hh>) 및 QR코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고창경찰서는 유관기관·협력단체·마을이장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 등 협조를 당부하고, SNS 등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부관아 복원 전문가 고견 수렴

복원의 필요성·역사적 의의 등 각계각층 전문가 토론회

정읍시가 주최·주관한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영선 전북도 의원과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 고부면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부관아 복원과 관련해 역사(동학), 건축, 역사 등의 전공자가 참여하면서 고부관아 복원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신병욱 교수는 고부관아 복원의 필요성과 역사적 의의, 목적, 복원 정비 계획 등을 밝히며 정읍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복원 이후 역사·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과 관광객에 의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방안, 문화재 활용사업과 문화재를 통한 마을민들기 방안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부관아 복원의 전제와 과제, 복원 이후 기대효과, 동학농민혁명 역사에서 고부농민봉기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예정

행안부 지침 변경, 주민 생활 불편 예상... '지역실정 맞지 않는 지침 개정 건의'

정부가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창군이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변경해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 매출액이 30억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현재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개로 이 중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는 70여개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원, 한의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순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면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농자재판매점이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행되면 주민들 불편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업체별 매출액은 신용카드사의 월간 결제수수료를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단 농어민수당 및 이동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은 이번엔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 받지 않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창군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1801억원이고, 판매액은 1386억원이다. 4년간 총 환전액은 1276억원으로 판매액 대비 92%에 이르면서 군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음식점, 마트, 카페, 전통시장 등 상가 대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예산 114억1500만원(국비 29억5000만원, 도2억9000만원, 군82억2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984억원을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비산 저감 AI 드론 활용 농작물 안전성 높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고부면 고부리 유채 포장에서 지역 농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용 비산 저감 AI 노즐 및 분무 장치 신기술에 대한 연시회를 진행했다.



AI(Air Induction) 노즐은 2019년 농약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PIS) 시행 이후 드론 이용 방제 시 비산에 따른 농약잔류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기술이다.

공기흡입형 노즐을 장착해 농약에 공기 방울을 유입함으로써 물방울의 부피를 키우고 비산을 억제하며 부착물을 향상시키는 등 기존 드론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을 살포했을 때 실증 실험 결과 작물 표면 부착률이 4배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벼, 콩,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방제 시 관행 대비 12%~40% 방제 효과가 향상되며, 비산은 30% 이상 감소한다.

참석 농업인은 "드론 방제 시 풍속이나 고도에 따라 인근 작물로 농약이 비산될 때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비산 저감 기술이 개발되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민의 다양한 제안 군정에 반영”

고창군, '2023 군민 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접수

고창군이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고창 군민참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모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방안 등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공모는 고창군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과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1차적으로 제안 소관 부서 및 주무부서의 협의를 통해 검토

가 이루어지며, 2차적으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심사 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하여 고창군민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금을,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안 공모 제도를 활성화하여 상·하반기 특정 테마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외식 업소 경영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정읍시가 지역 내 외식 업소(일반음식점)의 영업 활성화와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외식 업소 경영 컨설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 경영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외식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외식업소를 육성해 음식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달 4일까지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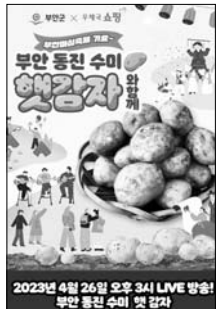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경영개선에 적합한 6개 업소(일반음식점)를 선정해 메뉴개발과 전략홍보 마케팅, 고객서비스, 경영마인드 개선 등 현장 중심 맞춤형 경영개선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영 위기 외식 업소에 대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 영업주의 자긍심과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동진수미햇감자 라이브커머스 26일 진행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부안군 대표특산물인 '동진수미감자'를 우체국쇼핑몰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우체국쇼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한시간 반동안 방송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바실축에 가요~ 부안동진감자와 함께~'라는 주제로 감자 2.5kg을 기준가격보다 약 20% 할인판매한다.

동진수미감자는 동진강 주변의 풍부한 미네랄과 염분이 함유된 간척지에서 자라 포슬포슬하고 짭짤한 식감이 특징으로, 지난주 우체국쇼핑몰에서 주문량이 폭주하여 일시품절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동진수미감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고, 소비자들과 생산자 간의 간격을 좁히는 등 착한가격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생

산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부안군과 부안우체국은 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몰에 부안군 전용 브랜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군 대표 농산물 상시 노출을 통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추진 중에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